

전 남

쑥쑥 크는 전남 향토산업

매출·일자리 창출...지역경제 이끌어 농식품부 작년 우수사업에 3개 선정

전남지역 향토산업이 기업 매출, 참여농가 소득, 일자리 창출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식품부 주관의 2011년 향토산업 평가에서 '장흥 햇개'가 최우수 사업장에, '고흥 석류'와 '강진 도자'가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

장흥 햇개는 기능성 신제품 개발과 생산농가 계층화를 통한 참여농가 실질 소득 증가로, 고흥 석류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강진 도자는 산간계 생활자기 산업화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정부 공

모사업인 향토산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개의 비교우위 자원을 발굴, 생산·가공시설을 확충하고 상품 개발과 마케팅 등 산업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들 우수사업장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도내 204개 향토산업 관련 기업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1.8배, 참여농가 가구당 소득은 500만원이 증가했고 새로운 일자리도 906개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향토자원을 소재로 395개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고 특허·지리표시 단체표장 등 향토자원 관련 49건의 지적재산권도 확보해 신기술과 체계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층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 매출은 향토산업 시행 전인 2006년과 대비해 총 786억원이 증가해 참여 업체당 평균 4억여원이 늘었으며 고흥 유자는 57억원이, 장흥 햇개는 13억원이 늘어 높은 매출액 증대를 보였다.

일자리 면에서는 영광 모시 및 송편, 담양 한과, 신안 함초 사업이 많은 고용을 창출했고 앞으로도 1278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올해도 담양 블루베리, 강진 된장 등 5개 신규사업을 포함해 18개 사업에 1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명창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향토자원이 고부가가치 산업화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향토자원이 지속성장 가능한 농어촌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소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사랑의 장담그기 전남개발공사(시장 김주열)는 지난 3일 영산호 국민관광지내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사회적 기업인 '남도비색'과 '해들녘'과 함께 서울 및 광주·전남지역 주부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장담그기'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날 담근 장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여진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연구기관 특산물 이색연구 2제

전남도 산하 연구기관들이 양파와 산수유 등 지역 특산물에 대한 이색적인 연구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은 양파의 항균효과, 특히 여름철 불청객인 비브리오패혈증에 효과가 있는지 연구 중이다. 최근 수년동안 전남에서만 매년 10여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 이중 50%가 사망한 점과 전남산 양파가 전국 재배 면적의 53%를 차지할 만큼 주산지인 점이 연구의 단초가 됐다.

보건환경연구원 양파 비브리오 항균효과 규명 산림자원연구소 산수유 우량품종 개발 구슬땀

연구원은 백합과의 다년초인 양파가 발달·부종·위염 등 민간 요법으로 활용돼온 점과 당뇨나 고지혈증, 혈류 개선에도 효과가 큰 점에 주목해 식중독 예방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은 양파에 함유된 유효 화합물이 혈압과 혈당 강화, 혈류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작용 등에 효능이 있고 퀴르세틴은 항알레르기·자외선 방어·항산화작용과 지방흡수 억제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무안에서 재배되는 개량종 자색양파의 경우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다양한 효능 이외에 여름철에 유행하는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항균작용이 규명될 경우 전남 특산물 중 하나인 양파의 이용가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

는 지리산 자락 구례 산수유의 우량품종 개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주민 소득에 효과노릇을 해오던 산수유가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어든데다 지난해부터 한약재 수입이 개방되면서 중국산이 300t 가량 수입될 소득이 더욱 감소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노령화와 병해충 등으로 생산량이 예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도 연구를 앞당긴 계기가 됐다.

산림자원연구소 유한춘 박사팀은 지난해 11월부터 열매가 크고 무게가 '담동 1호'와 '달전 1호' 등 2개 개체를 선발해 점목과 삼목(가지나 눈을 땅에 꽂아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 방법으로 증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산수유의 약리 성분 조사와 함께 우량 묘목 증식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우량 개체를 품종으로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북항 활어위판장 이달말 개장

年500억대 활어 위판

서남해에서 잡힌 자연산 활어를 취급할 목포북항 활어위판장이 진통 끝에 이달말에 문을 연다.

목포시는 "비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광막 시설, 도난방지 셔터, 조절 등 시설 보완을 거쳐 이달 말에 위판장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목포수협과 신안수협이 2년씩 활어위판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위판장 임대료는 연간 1억8000만

원이다.

위판장은 2층 규모의 북항 해양수산복합단지 내(1104㎡)에 활어 위판장, 중매인, 판매과 사무실을 갖췄다. 위판장에서는 낙지와 광어, 민어, 농어 등 자연산 활어를 취급한다. 연간 500억원대의 활어위판을 기반으로 한 서남권의 최대 활어유통단지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위판장은 지난해 안공됐지만 목포와 신안수협의 공동 운영 방안에 대한 협상지연으로 1년간 개장

이 늦춰졌다.

또 목포수협과 신안수협은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위판장에 따른 시설이 미비해 뒤늦게 보강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활어위판장은 아직 5t 이상 어선이 뜰 수 있는 계류장을 갖추지 못해 개장 이후 위판차질이 예상된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에 계류장 설치를 요청했지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장흥 종합병원 행촌장학회

학생 34명에 장학금 전달

장흥 종합병원(원장 김동국) 행촌 장학회는 최근 장흥 지역 소년·소녀가장과 생활이 어려운 성적 우수학생 34명에게 2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행촌 장학회는 지금까지 15년간 장학금, 재향근로회, 목회자, 경찰가족, 직원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성적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497명의 학생들에게 3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귀감이 되고 있다.

행촌 장학회는 매년 2회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동국 병원장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하며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흥 천관산 도립공원 입구 조형물 설치

'호남의 5대 명산'인 장흥 천관산 도립공원 입구에 상징 조형물이 설치됐다.

장흥군은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남도길 조성사업으로 천관산 도립공원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스틸 조형물을 설치했다.

상징 조형물은 역세와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뤄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은 듯 산세가 뛰어나 지제산(支提山), 천풍산(天風山), 신산(神山)으로 불려왔던 천관산의 이미지를 초목의 신선함과 생동감으로 표현했다. 또 소박한 빛깔로 은빛물결을 연상케 제작됐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조정 배우러 오세요

장성군 4월~10월 무료체험학교 운영

'수상 스포츠의 일번지'로 명성을 얻고 있는 장성군이 조정 레포츠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성군은 조정경기의 저변 확대와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장성호 조정경기장 일원에서 지역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조정레포츠 무료 체험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조정체험학교는 매주 주말을 이용해 1일 체험반과 2일 코스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첫날 조정이론 및 안전교육, 기초체력 훈련 등을 실시하고, 이어 지도자의 도움을 받

아 '쿼터 러플스컬'(한 선수가 2개의 노를 짓는 4인승 경기), '더블 스컬'(2인 1조) 등을 체험하게 된다.

기수당 모집인원은 15명이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15일부터 군청 문화관광과(061-390-7228)로 참가신청서와 조정체험학교 안전수칙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조정경기의 저변확대와 군 조정인프라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yongho@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준용량(사용전력량 kWh)월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H.P 011-659-7001

광주·전남 기능장1호 대산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일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대산프리모가발